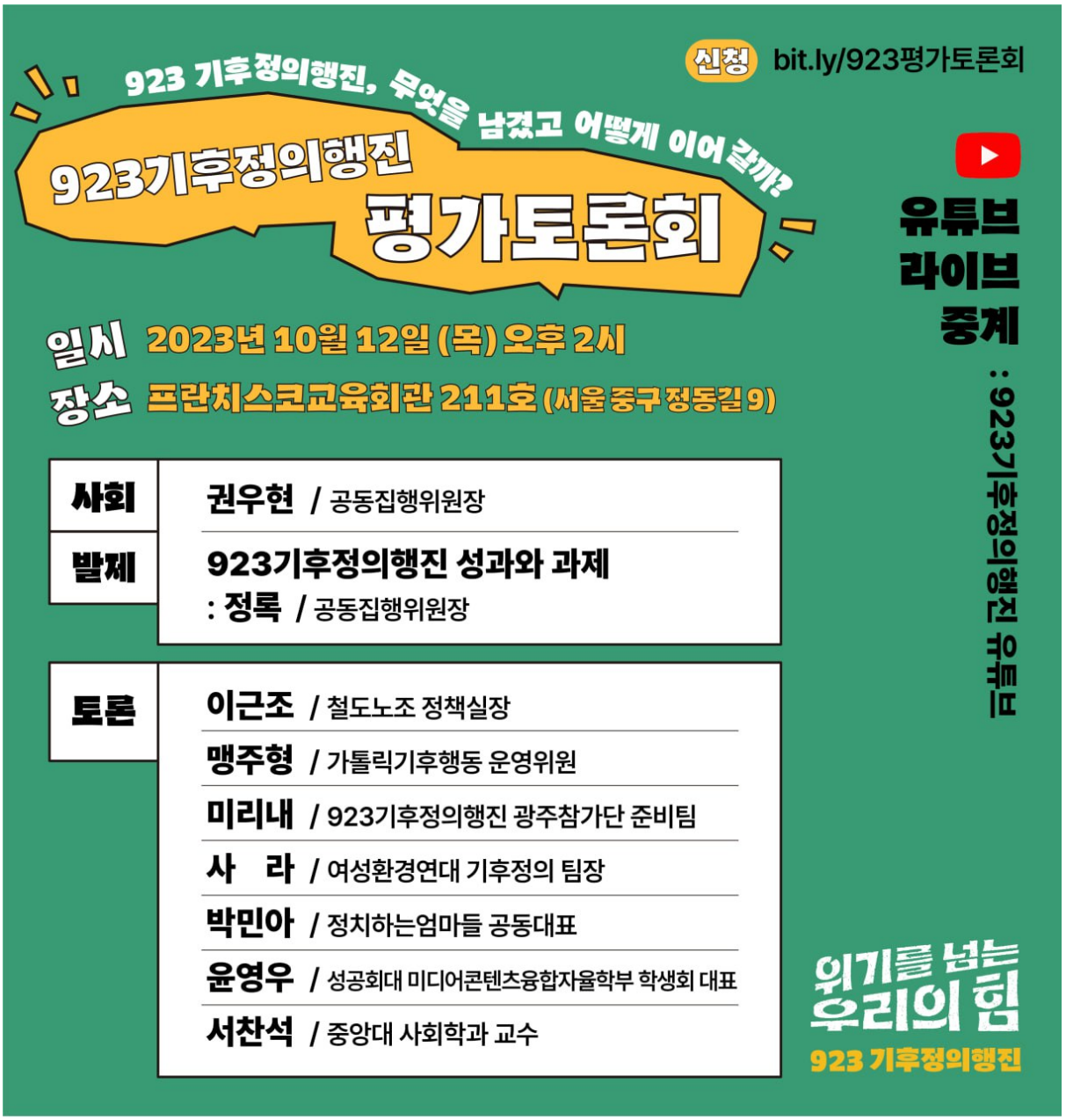
923 기후정의행진, 무엇을 남겼고 어떻게 이어 갈까?
923기후정의행진
평가토론회
신청 bit.ly/923평가토론회
유튜브 라이브 중계 : 923기후정의행진 유튜브
일시 2023년 10월 12일 (목) 오후 2시
장소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11호 (서울 중구 정동길 9)
사회 권우현 / 공동집행위원장
발제 923기후정의행진 성과와 과제
: 정록 / 공동집행위원장
토론 이근조 / 철도노조 정책실장
맹주형 / 가톨릭기후행동 운영위원
미리내 / 923기후정의행진 광주참가단 준비팀
사 라 / 여성환경연대 기후정의 팀장
박민아 /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윤영우 /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학생회 대표
서찬석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
923 기후정의행진

〈발표문〉

923기후정의행진의 성과와 과제

923기후정의행진 집행위원회

1.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923기후정의행진', 지난 3개월의 발걸음

2023년 6월 24일, 기후위기 비상행동과 기후정의동맹은 '9월 기후정의행동'을 제안한다. 2019년 9월에 시작된 기후대중행동이 2022년 '924기후정의행진'을 통해 더욱 깊고 넓어졌음을 확인하면서 기후정의운동의 힘을 다시 모으자는 제안이었다. 이에 호응한 133개 단체가 '9월 기후정의행동(가칭) 조직위원회'를 구성했고, 7월 12일 1차 조직위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1차 조직위를 통해 9월 23일 서울에서 열리는 '923기후정의행진'을 결의하고 다음과 같은 3가지 기조와 목적을 토론을 통해 결정한다.

- 부정의한 기후정책에 대한 정부 비판과 함께, 기후정의/ 자본주의 체제전환을 향한 다양한 운동의 요구를 전면화/대중화하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
- 핵발전 확대정책,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비롯한 부정의한 에너지 정책에 맞서, '정의로운 에너지 체제 전환' 투쟁을 펼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 22대 총선을 앞둔 지금, 기후정의/자본주의 체제전환 운동 세력화에서 한 발 더 나아가자

기후정의행진이 정의로운 에너지 체제전환과 함께, 체제전환을 향한 다양한 운동의 요구를 전면화/대중화하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는 점, 22대 총선을 앞두고 기후정의행진을 통해 기후정의운동이 강력한 사회세력으로 등장해야 한다는 것을 이번 행진의 기조로 삼은 것이다. 이러한 923기후정의행진의 기조와 목표 아래 조직위 참여단체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슬로건 공모와 대정부 요구안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8월 16일 2차 조직위 회의에서는 5대 대정부 요구와 14개 세부요구를 확정한다. 5대 대정부 요구는 다음과 같다.

- 기후재난으로 죽지않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

- 핵발전과 화석연료로부터 공공 재생에너지로,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실현하라
- 철도민영화를 중단하고 공공교통 확충하여,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라
-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위기 가속화하는, 신공항건설과 국립공원 개발사업 중단하라
- 대기업과 부유층 등 오염자에게 책임을 묻고,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8월 30일, 조직위는 이러한 대정부 요구를 발표하고 923기후정의행진 개최를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후 9월 23일까지 한 달여의 시간동안 923 조직위는 5대 대정부 요구를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다. 150여개의 '우리동네 거점공간'을 통해 923기후정의행진을 알리면서, 9월 4일~15일 기간에 대정부 요구를 중심으로 923기후정의행진 전국동시다발 공동행동을 진행한다. 또한 기후정의행진의 핵심요구 현안들에 적극 연대하였다. 9월 14일부터 나흘동안 이어진 철도파업에 적극 연대하며 거리연설회 개최와 언론 기획연재를 진행했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공공운수노조 '공공성 페스타'에서도 923기후정의행진의 요구와 목표를 적극 알리며 기후정의운동의 현안에 함께 목소리를 냈다.

9월 23일 12시 사전행사부터 시작된 923기후정의행진은 623개 조직위 참여단체 회원, 2,600여명의 추진위원 및 시민 등 3만여 명이 함께 했다. 세종로 본집회와 용산 대통령집무실과 광화문정부청사를 향한 두 갈래의 행진 모두, 923기후정의행진이 내건 대정부요구를 중심으로 각 투쟁현장 주체들의 발언과 규탄, 행진참가자들의 외침이 SK 본사, 일본대사관, 정부청사, 대통령집무실을 향해 외쳐졌다.

2. 923기후정의행진의 성과

1) 기후정의운동의 전선을 만들어내기 위한 대정부 요구와 투쟁의 조직

9월 유엔기후정상회의와 11월 기후변화당사국총회를 앞두고 이를 압박하기 위해 2018년부터 9월 국제기후행동이 펼쳐지고 있다. 2019년 9월에 시작된 한국의 기후대중운동은 바로 이러한 국제기후행동의 흐름 속에서 조직됐다. 그이후 지난 4년동안 한국의 기후운동은 급성장했고,

질적인 변화를 겪어오고 있다. 2019년 9월에 '기후위기,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하라'고 외치며 정부에게 기후위기 비상상황 인정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020년 코로나19로 집회가 금지된 상황에서 9월 행동은 '우리는 살고 싶다'였다. 2021년 '지금당장 기후정의'를 외쳤다.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정의'가 기후운동의 기치로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해 '924기후정의행진'은 1) 화석연료와 생명파괴 체제 종식, 2) 모든 불평등 종식, 3)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 목소리 확대를 요구로 내걸었다. 기후정의 실현과 불평등체제 타파를 외치며 최일선 당사자가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이는 구체적인 투쟁요구라기보다는 기후정의운동의 큰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우리의 다짐'에 가까웠다.

2023년 923기후정의행진은 5대 대정부 요구를 통해 '기후정의'와 '체제전환'과 같은 운동의 지향이 구체적으로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것인지를 밝히고자 했다. 특히 이는 현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위기의 구체적 현실과 정세에 개입하면서 기후정의운동의 전선을 만들고자 함이었다. 오송참사는 기후재난을 야기하면서 재난을 참사로 만드는 기존 체제의 실패였으며, 일본 핵오염수 방류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은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의 부정의한 핵발전 체제였다. 철도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경쟁과 이윤논리 속에서 쪼개지고 위축되고 있는 공공교통의 현실을 드러냈다. 새만금 잼버리 사태가 보여준 것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지역의 온갖 개발사업이 작동하는 추악한 이해관계의 현장이었다.

이 모든 것들이 923기후정의행진이 조직되기 시작했던 시기에 한국사회를 휩쓸고 있었던 '정세'였다. 923 조직위는 여기에 대정부 요구를 통해 개입하면서 기후정의운동의 전선과 정세를 만들고자 했다. 정부의 온실가스 숫자놀음이 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넘어, 기후재난의 한복판에서 기후정의운동이 만들고자 하는 변화의 전망과 경로를 구체적인 현실의 싸움과 투쟁을 통해서 조직하려 했다. 그리고 그 힘을 923기후정의행진을 통해 모아내고 드러내고자 했다. 기후재난이 참사가 되지 않도록 재난대응체계의 근본적인 전환, 공공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공공교통체계로의 전환이 그것이다.

실질적인 성과와는 별개로, 한국 기후정의운동의 성장과 변화라는 관점에서 923기후정의행진은 앞서 정리한 3개월의 발걸음이 보여주듯이 구체적인 투쟁요구를 통해 기후정의운동의 정세와

전선을 만들고자 했던 시도이자 공동의 경험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대정부 요구는 단지 이번 2023년 기후정의행진만의 요구가 아닌, 이후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기후정의운동이 쟁취해나가야 할 구체적 과제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이렇듯 600여개가 넘는 사회운동단체, 3만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 한 운동으로 성장한 9월 기후정의행진은 2019년 이후 4년의 시간이 보여주듯이, 기후운동을 더 넓고 깊은 대중운동으로 확장해오는 동시에 그 힘을 기반으로 우리가 처한 삶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운동의 뾰족한 힘을 만들어온 과정이기도 했다.

2) 부문과 의제를 넘는, 체제전환운동으로서 기후정의운동의 대중적 확장

작년 924기후정의행진은 다양한 사회운동들이 '기후정의'라는 이름아래 대중적으로 결집했던 경험이었다. 400여개의 사회운동단체들이 기후정의와 체제전환을 외치며 한국사회에 강력한 기후정의운동 세력이 등장했음을 알린 것이다. 올해 923기후정의행진은 600여개가 넘는 단체가 함께 하며, 더욱 다양한 사회운동으로 확장되었다. 뿐만 아니라, 2,600여명의 추진위원 그리고 기후정의행진 참여자 설문에서 확인된 34%의 개인참여자 비중에서 알수 있듯이, 기후정의운동은 대중적 확장의 가능성도 여전히 크다. 이제 9월 기후정의행진은 더이상 '기후의제/부문'의 운동이 아닌, 체제전환운동으로서 기후정의운동이라는 공동의 사회운동이자 투쟁의 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5대 대정부 요구와 14개 세부요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탈핵운동, 생태운동, 반빈곤운동, 생명안전운동, 평화운동, 농민운동, 노동운동, 반차별운동, 페미니즘 운동의 요구와 지향들이 함께 녹아들어 있다. 각각의 운동들이 자기과제와 전망 속에서 바로 지금 기후정의운동의 요구와 지향들을 발견하며 재구성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중적으로 조직되어온 생명안전운동은 반복되는 기후재난 속에서 기후정의운동의 전망을 만들어가고 있다.
철도노동자들은 이번 파업의 연대경험 속에서 기후위기 시대 '공공교통'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고민하게 됐다. 페미니스트 기후정의 선언이 조직되는 과정도 마찬가지다.

이는 923기후정의행진이 기조와 목표에서 밝힌 22대 총선을 앞둔 기후정의운동의 강력한 세력화의 상을 고민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조점이 될 수 있다. 이를테면 기후정의운동의 세력화는 특정한 부문이자 의제로서 '기후'를 중심으로 한 총선정책대응이나 세력화 이상일 수 밖에 없다.

기후정의운동이 체제전환운동을 표방하며 운동의 전망과 과제를 새롭게 설정해나가는 것과 기후정의운동의 세력화는 다른 과정이 아닐 것이다.

3. 923기후정의행진이 남긴 과제

1) 대정부 요구를 통한 기후정의운동의 전선은 형성되었나?

923기후정의행진은 5대 대정부 요구를 통해, 당일 하루 대규모 집회가 아닌 2023년 기후정의운동의 구체적인 요구와 변화의 전망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각기 다른 현안처럼 이해되었던 기후정의투쟁의 요구와 과제들을 집약하고 선명한 전선을 만들고자 했다. 이러한 조직위의 활동방향과 노력이 의미있는 사회적 여론과 흐름으로 형성되었는지를 묻는다면 회의적이다. 이는 아직까지 9월행동이 한국사회를 뒤흔들 기후정의운동의 정세적인 투쟁을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923기후정의행진은 대정부 요구를 통해 현재의 정세와 투쟁에 적극 접속하고자 했지만, 언론을 통해 비춰지는 923 당일의 모습은 여전히 '기후위기의 해결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모였다'는 수준에 머물렀다. 윤석열 정부에게 우리의 요구는 전혀 압박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SK 에코플랜트(건설)는 ESG 경영을 이야기하면서 923기후정의행진을 홍보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기후정의운동의 요구는 사회적 결집과 투쟁으로 아직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요구의 성안이 아닌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2) 관행적인 연례행사인가, 정세적인 투쟁인가?

2019년 이후, 매년 9월 기후대중행동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3년만의 대중행동으로 성사된 작년 924기후정의행진에 이어, 올해 참여단체와 조직의 폭에서 더욱 확장된 923기후정의행진이 펼쳐지면서 9월은 사회운동진영을 포함해 대중적으로 기후정의행진이 있는 시기가 되고 있다. 이는 기후정의운동이 만들어낸 중요한 성과이면서 앞으로 조직할 9월 기후대중행동의 성격과 방향을 가늠하는데 중요한 조건이자 과제가 되고 있다.

9월이 기후대중행동의 시기가 되면서, 흔히 5월의 노동절과 비교되기도 한다. 하지만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대규모 조직력을 구축한 노동운동과는 다른 조건 속에서도 기후정의운동이 9월에

대규모 기후행동을 조직하고 성사시킬 수 있었던 것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현실과 체제전환의 절박성과 필요때문이었다. 바로 이러한 현실에 파열구를 내고 기후정의행진으로 모인 사회적 힘이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대중투쟁의 장이 되고 있을까? 923기후정의행진에 함께한 많은 이들은 가장 활력넘치는 대중운동으로 기후정의운동이 자리잡았다는 기쁨과 동시에 때되면 모이는 연례행사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함께 들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9월이 기후정의투쟁의 달이 되었다는 것과 정세적인 대중투쟁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결코 상호 배제적이거나 대립적인 게 아니라는 점이다. 9월 기후대중행동은 더 크고 깊어진 한국의 기후정의운동의 대중적 토대이자 근거이다. 동시에 단 하루의 대규모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된다. 9월 행동은 그 전부터 만들어져온 기후정의운동의 정세적 투쟁이 더 크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9월 행동을 통해 투쟁은 다른 차원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9월 행동은 3개월여의 기간동안 준비되고 하루의 대규모 집회를 치뤄내는 '연례행사'의 성격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923기후정의행진을 통해 우리는 기후정의투쟁이 특정 부문의 의제를 넘어, 한국 사회의 핵심 정세와 맞닿아 있는 구체적인 투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2024년 9월 행동의 위상과 성격은 기후정의운동이 이후 어떤 정세적 투쟁을 전국적으로 조직하고 펼쳐내느냐에 달려있다. 당장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가 2025년말부터 본격화된다. '정의로운 전환'이 단지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공공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실질적으로 강제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를 뒤흔들 대중적인 기후정의투쟁을 조직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토론문 1〉

공공철도, 드디어 기후정의행동과 동행을 시작하다.

이근조(철도노조 정책실장)

철도노조는 올해 4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전략사업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철도 민영화 정책을 막기 위한 투쟁 계획 속에서 9·23 기후정의행진과 함께 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노동조합의 총력결의대회와 기자회견, 지방본부와 녹색운동 단위들과의 간담회, '공공철도가 기후정의다'라는 기획기사, 파업기간 거리연설회, 기후정의 열차 등 많은 활동이 공동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철도가 보다 공공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시민과 계층이 평등하게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기후정의 활동가들의 이야기들은 철도노동자들이 이야기해왔던 공공철도가 기후위기 대응에 보다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하는 이유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철도민영화를 중단하고 공공교통 확충하여,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라〉라는 대정부 요구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철도의 확대가 철도노동자들만의 주장이 아닌 전 사회가 같이 요구하고 쟁취해야하는 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9월 철도노조가 파업을 통해 9·23 기후정의행진과 같이 하고자 했던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국민의 편익을 무시하고, 철도의 공공성을 해치고 있으며, 기후정의에 역행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1차파업 후 변화된 상황으로 인해 파업에 참가했던 철도노동자들과 함께 9·23 기후정의행진을 하려고 했던 계획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파업이 종결된 후에 참여가 이뤄졌던 9·23 기후정의행진은 파업기간의 긴장감에 비하면 매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익산역에서 출발한 기후정의열차는 이전에 연대단위들과 함께 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9·23 기후정의행진에서 어른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와 사람들, 가족들이 모여 개개인의 요구들을 들고 즐겁게 집회를 만들어가는 역동적인 모습을 통해 보고 한 조합원은 '이래서 노동조합이 기후정의행동과 함께하려 했구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구나' 하고 감탄하기도 하고, 아이와 같이 왔던 조합원은 '물, 가스, 전기는 상품이 아니다'라고 아이가 저녁시간에 흥얼거리는 영상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행진에 같이 참가했던 조합원들의 밝은 모습은 9·23 기후정의행진 참여를 통해 조합원들이 우리가 계속 함께 해야할 운동임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집행부의 고민들이 잘 전달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철도노동자들은 이번 기후정의행진을 통해 새로운 한 발을 딛었습니다. 우리가 지켜온 공공철도가 기후위기 시대에 공공교통으로, 보편적인 이동권을 보장해야하는 방향을 나아가야 함을 다시금 확인했고, 중앙 집중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참여하고 만들 수 있는 장을 새롭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수서행 KTX운행을 요구했던 1차 파업이 중단되기는 했지만, 여전히도 철도산업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거나, 산업을 재편하여 민영화하려는 하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 철도노동자들은 민영화 공세 맞서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도를 민영화하려는 정부에 맞서 지난 20년동안 철도노동자들이 그 중심에서 싸워왔듯이, 기후위기시대에 공공교통을 확충하고 지켜내는 중심에서 싸워나갈 것입니다.

〈토론문 2〉

맹주형
(가톨릭기후행동 운영위원,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정의 평화 환경(JPIC) 담당)

프란치스코 교종은 지난 2015년 생태회칙 '찬미받으소서'(Laudato Si')를 발표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올해 10월 4일 성프란치스코 성인 축일에 사도적 권고인 '하느님을 찬양하여라'(Laudate Deum)을 발표했다. 교종은 타인을 향한 우리의 돌봄과 지구를 향한 돌봄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기후변화는 전 세계 공동체가 마주한 주요한 도전 중 하나이고, 나라와 세계 안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영향받고 있음을 언급한다. 그리고 이는 '구조적 죄의 충격적인 예'라고 말한다. ('하느님을 찬양하여라' 3항)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기후정의운동도 발제문에서 언급한 대로 그간 양적 성과와 질적 변화를 겪어왔다. 기후 위기 비상 상황에 대한 선포를 통해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웠고, 기후 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을 등장시켰다. 코로나19로 집회가 금지된 때에도 '우리는 살고 싶다'를, 2021년에는 '지금당장 기후정의'를 외쳤다. 코로나19는 인간의 생명이 다른 생명과 환경과 갖는 밀접한 관계를 확인시켜 주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는 세상 어느 곳이든 한곳에서 벌어진 일이 온 지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그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확신을 배웠다.

기후정의운동도 마찬가지이다. 발제문에 언급된 대로 탈핵운동, 생태운동, 반빈곤운동, 농민, 노동운동, 페미니즘 운동 등 각각의 운동은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개별(조직)만이 아닌 함께 연대함을 통해 전환과 구원의 가능성을 확인해 온 과정이었다. 2023년 너무나 많은 사회 현안과 부조리에 지친 한국 사회에서 기후정의행진 조직화의 우려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00여 개의 사회단체, 3만여 명의 시민들이 모인 성과는 연결된 모두의 구원 체험이었다.

발제문에서 과제로 언급한 대정부 요구를 통한 사회적 집결과 투쟁은 결국 정치권력의 문제이다. 전환을 위한 더 큰 민주화가 필요하다. 특히 모든 사람의 권리와 공동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더 힘 있는 자들의 권리만을 유지, 보존하려는 정부의 압박과 전환이 더욱 중요하다. 프란치스코 교종의 말대로 하느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자부하는 인간존재는 인간에게 최악의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하느님을 찬양하여라' 73항)

제안하자면 '우리동네 거점 공간'도 필요하고 좋은 시도였지만 보다 많은 종교 거점(성당(하늘땅물벗), 수도회(부천 열린 분원 등), 초록교회, 법당)들이 한시적인 거점 공간의 역할보다 더 확대된 종교계의 기후 거점 공간으로 고려되고 준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후정의행진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와 연결되어야 한다. 프란치스코 교종은 이번 당사국 총회가 화석연료 퇴출을 위한 구속력 있는 정책이 합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효과적이고 구속력이 있고 쉽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을 촉구한다. 기후정의행진도 세계적 공동선보다 자국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나라들로 인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협약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대응을 촉구해야 한다.

발제문에 언급한 기후정의행진의 과제는 전환을 위한 운동의 사회적 집결과 투쟁, 정세에 맞춘 전국적 조직과 운동 등 큰 과제들이다. 한국 사회를 뒤흔들 대중적 기후정의투쟁의 조직화도 중요하다. 하지만 간과되지 말아야 할 것들은 '영적인 동기들'이다. 영적 동기는 성장사회를 넘어서 성숙의 사회로, 외형적 발전이 아닌 내포적 발전으로, 그리고 옆으로 손을 잡는 삶이다. 욕심을 줄이고 만족할 줄 아는 불교의 '소욕지족(少慾知足)'의 삶, 그리스도교의 '생태 영성'의 삶이다. "적은 것이 많은 것이다(Less is More)." 적은 것으로 행복해지는 능력이며 바로 검소함(Simplicity)이다.

기후정의운동은 다양한 종교인들의 참여이고, 종교인들의 믿음을 통한 행동은 삶 전체를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과 연대하기 때문이다. 다른 피조물이 서로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근원적인 영적인 동기들이 기후정의운동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적게 오염시키고 쓰레기와 육식을 줄이고 현명하게 소비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은 새로운 문화이다.('하느님을 찬양하여라' 71항) 문화적 변화 없이는, 삶의 방식과 사회적 공존의 성숙 없이 지속적인 변화는 없다. 전환을 위한 정치적 결단과 함께 상호돌봄의 길을 친교 안에서 함께 걸어가자.

〈토론문 3〉

기후정의운동 어디로 갈것인가?

(광주지역 923기후정의행진 조직화 과정에서의 고민을 중심으로)[1]

미리내(광주녹색당, 923기후정의행진 광주준비팀)

1. 광주의 923기후정의행진 조직화 과정 공유(부제: “우리는 923 갈려고 모인 거 아니잖아요”)

- 2023.6.15: 기후정의운동을 고민하는 4명의 책 읽기 모임
- 6.21: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 간사 단체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담당자와의 만남
- 7.21: “광주기후운동 어디로 갈 것인가?” 집담회
    - 참여단위: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 광주기후동맹, 광주지속협, 광주녹색당, 정의당광주시당, 광주시의회 시의원 2인(기후특별위원회 소속)
- 8.4: 광주기후운동협의체(가안) 2차 회의
    - 현안 나눔, 923기후정의행진 참여 결의
- 8/11~9/22: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zoom 회의
- 9/9 광주참여단 기자회견:
    - 발언-전남대환경동아리, 금속노조 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 9/23 당일 버스 2대, 70명의 시민들과 함께 참여
    - 참여단위: 청년그룹(대학생기후행동, 전남대 환경동아리, 일점오도씨), 한살림생산자연합회, 금속노조 광주지부, 환경생태교사 모임 등

1) 준비 과정의 성과와 한계

- 70명의 작은 규모이긴 했으나 노동조합 단위의 기자회견과 행진의 참여가 있었다. 414 기후정의파업 당시 노동조합 단위(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의 결합을 위해 제안하였으나 함께 결합하지 못했으나 923에서는 금속노조 단위(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의

[1] ※923 광주준비팀과 함께 논의하여 작성된 토론문이 아닌 개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기자회견 발언과 금속노조 지부 간부들이 행진에 참여하며 각 단위와 개별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었다.

- 광주기후운동협의체(가칭) 구성원들이 923기후정의행진을 준비 하고 매주 온라인 회의로 점검해가면서 함께 하는 경험을 축적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광주기후운동의 취약함을 확인하기도 하는 과정이었다.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의 경우 2019년 전국적 차원의 기후위기비상행동이 만들진 후 개별 마을단위까지 조직되며 전국적 차원의 모범적인 모델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2022년 기후정의행진을 올라가진 않았지만 그 전날인 9월 23일(금) 200여명의 시민들이 광주시청을 둘러싸는 피켓팅을 할 정도의 조직력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올해 923 행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직력, 혹은 기후위기비상행동 차원의 리더쉽 자체가 부재하거나 미비한 상황인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 준비팀 구성원들 모두가 단체 전임자로 상근을 하는 조건에서 923 준비 실무를 담당하다보니 물리적 어려움이 존재했고, 자체 지역 단위의 기획사업을 고민조차 하지 못한 채 시간에 쫓기듯 행진을 준비해야 했다. 지역에서 자임하고 자처하는 '기후정의활동가' 한 명이 너무 절실함을 확인하였다.

2) 923을 경유하며 드는 고민들

- "왜 작년보다 가보자 가보자 하는 분위기가 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타 지역 조직 담당자와 나누었다. 그리고 작년 참여자들이 왜 올해 923 기후정의행진 참여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만약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작년 3만명의 기후 시민이 모였으나 정세에 어떤 개입력도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무력감, 혹은 비판의식에 대한 반증이라면 0만명 규모의 행진의 방식은 유효한가?라는 고민.
- 발제문에서도 언급한대로 9월 기후정의행진을 연례행사처럼 마련할 것인가와 관련해 만약 매년 기획된다고 전제하면 차라리 노동절처럼 9월을 확정짓고 1년동안의 큰 틀의 계획들이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 가능한 범주를 넘어 상상해본다면 우리의 구체적 요구안과 세부계획안 중 몇 개를 지역에서 공동으로 실천하는 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조직위 구성단위, 혹은 지역단위에서 1년의 사업계획으로 반영, 실천해보고 이를 매년 9월 행진으로 귀결하는 방식은 어떨까 하는 고민.
- 그렇다면 결국 정세에 대한 개입력을 갖기 위한 기후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세력화에서도, 내년과 이어질 9월 기후정의운동의 전선을 구축하고 전략과 전술을 세워가기 위해서라도 이 운동을 이끌어가겠다고 자임, 자처하는 주체가 필요하다.

2. 전국 규모의 923기후정의행진 준비 과정을 바탕으로

- 준비 과정에서 414기후정의파업 당시 각 단위별 기후정의 선언에서 더 확장된 것으로 보이는 'N개의 기후정의학교'와 '페미니스트 기후정의선언'이 매우 인상적으로 다가왔다. 특히 페미니스트 기후정의선언이 시사하는 바가 컸다고 본다. 작년 924 때 널리 울려퍼진 '체제전환'이라는 구호 이후 '어떤' 체제를 '어떻게' 전환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이 없어 오히려 추상적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다면 일군의 페미니스트들은 현재의 체제를 '가부장제적 자본주의 체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해법으로 '탈성장 돌봄사회'로 전환하자며 10개의 요구[2]를 명확히 하는 것에 있어서의 반가움이 있었다.
- 이전 운동사회가 한국사회의 성격을 식민지반봉건주의로 규정한 NL(민족해방)과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PD(민중민주)로 경합하고 경쟁하며 차이를 부각한 역사를 가졌다면, 지금은 오히려 당신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체제는 무엇인지 묻고 누구와 어떻게 전환하길 원하는지 함께 토론해가며 차이보다는 공통을 발견해가는 과정에서의 기후정의운동의 확장성이 생겨날 것으로 기대된다.

3. 마무리하며, (부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요구가 내 삶으로 들어올 때)

- 923행진 후, 참가비 입금 계좌에 금속노조 단위로 보이는 곳에서 후원금을 보내왔다. 확인해보니 기자회견에 참여도 하고 행진도 함께 하려 했다 행진은 하지 못한 ' 금속노조 광주자동차부품사지회'에서 보내온 것이었다. 감사 전화를 하던 중 지회장님이 "함께 가지 못해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건네왔다. 지역에서 공공교통을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자동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활동가에게 오히려 함께 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그를 통해 나는 우리 지역 노동자 삶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고민하고 그들에게 아주 미약하나마 연결감을 느낀다. 이러한 만남과 대화가 가능할 수 있었던 조건으로서 기후정의행진이 가진 또렷한 힘이 있다. 지금의 토론이 '조건'을 뛰어넘어 정세에 개입할 '힘'으로서의 기후정의행진이 더 고민되는 자리이길 기대한다.

[2] 1. 돌봄의 공공성을 확보하라. 2.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라. 3. 기후대응 정책 전반에서 젠더관점을 반영하라. 4. 여성·지역민 등 사회적 소수자가 주체가 되는 탈중앙집권적 기후위기 대응책을 마련하라. 5. 젠더 관점의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한다. 6. 인간과 비인간 동물 모두가 공존하는 종평등한 사회로 전환하라. 7. 핵발전, 석탄발전 계획을 폐기하고 근본적인 기후위기 대응책을 마련하라. 8. 주거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하라. 9. 여성 농민·농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식량주권을 확보하라. 10.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이행하라.

〈토론문 4〉

페미니스트 기후정의 운동의 의미와 과제

사라(여성환경연대)

페미니즘 운동 내부에서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들은 언제나 고려되었으나, 주류의 위치를 점하고 있지는 못했다. 하지만 코로나 19라는 사회적 재난 속에서 기후재난이 성차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경험하게 되었다. 성장주의와 남성중심적인 노동시장은 기후재난 속에서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불안정한 위치로 몰아넣었고, 사회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돌봄은 가정 내의 여성의 일로 전가되었다. 앞으로 빈번해질 기후재난은 성차별한 구조를 더욱 악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것이다. 이것이 기후재난에서 성평등이 고려되어야 할 이유이다. 페미니즘 운동과 환경운동 모두에서 성평등한 기후위기 대응을 주된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여성환경연대는 페미니스트 기후정의 선언문은 여성, 청년, 성소수자, 비인간동물을 모두 포함한 페미니즘의 관점이 기후정의 담론의 주요 의제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여성, 청년, 동물권 단체들과 함께 “페미니즘 기후정의 요구”를 작성하였다. 2023년 4월, 여성환경연대를 중심으로 동물해방물결, 민달팽이유니온,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셰어, 에코페미니즘연구센터달과나무, 장애여성공감, 청년기후긴급행동,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WCA연합회 총 11개 단체가 모여 논의를 시작했다. 현재 국내에서 일어나는 기후위기의 문제는 무엇인지, 이 중 젠더관점이 부재하거나 혹은 사회적 소수자의 불평등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의제는 무엇인지 찾고 대안을 모색했다. 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의 공공성을 확보하라.
2.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라.
3. 기후대응 정책 전반에서 젠더관점을 반영하라.
4. 여성·지역민 등 사회적 소수자가 주체가 되는 탈중앙집권적 기후위기 대응책을 마련하라.
5. 젠더 관점의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한다.
6. 인간과 비인간 동물 모두가 공존하는 종평등한 사회로 전환하라.
7. 핵발전, 석탄발전 계획을 폐기하고 근본적인 기후위기 대응책을 마련하라.
8. 주거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하라.
9. 여성 농민·농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식량주권을 확보하라.
10.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이행하라.

페미니스트 기후정의 선언과 10대 요구안은 2023년 5대 요구와 14개의 세부 요구와도 결을 같이하면서도 한국의 주요 여성단체들의 언어로 지향점을 합의했다는 사실에 큰 의의를 지닌다. 특히 각 여성단체로 파편화되어 있던 이야기들을 “기후정의”로 묶어냄으로써 세력화를 형성하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다. 이는 923 기후정의행진이라는 실질적인 공론장이자 운동의 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반면, 페미니스트 기후정의 요구안을 만들기 위해서 논의와 합의 과정이 길었던 만큼 그 결과물이 단순히 9월 23일 하루의 이벤트로 멈춰져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의 요구안이 단순한 선언에서 그치지 않고 체제변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대응을 포함한 후속 활동의 계획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 또한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토론문 5〉

더불어 가는 사회로의 전진 기후정의행진

박민아(정치하는엄마들)

3만명이 모인 대규모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무탈하게 본 행사를 마친 것에 대해 실무진들께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미래세대를 걱정하는 평범한 양육자로, 그리고 함께 살고 있는 어린이·청소년들과 함께 923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하였습니다. 923기후정의행진 선언문에서도 밝혔다시피 양육자들은 현재 살고 있는 나를 비롯하여 미래세대의 생존권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큽니다. 이런 기후위기 속에 누군가 키워내기 위해 출산과 돌봄을 결심한 사람들은 기후위기 속 무책임한 결심이 아닌, 어른들의 책임 속에 아이들을 키워내기 위해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5대 대정부 요구안 중 “기후재난으로 죽지않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 라는 요구안이 가장 크게 와닿았습니다.

기후위기를 넘어선 기후재난은 우리 모두의 재난입니다. 발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기후정의행진은 기후의제/부문’의 운동이 아닌, 모두의 사회운동이자 투쟁의 장이 되어야 하는 것에 십분 동의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기후의제가 모든 국민의 생존권 침해라는 목소리가 더 두텁게 형성되어 모든 이들이 장벽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사회운동 혹은 투쟁의 장이라는 개념보다 기후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을 위한 축제로 인식되어야 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의견을 내어 봅니다. 기후의제가 모든 국민의 생존권 침해라는, 우리 모두의 위기라는 목소리에 집중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또한 여기 계시는 많은 패널분들보다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시민단체 일을 오래 한 사람도 아니고 저 또한 평범한 시민으로 기후위기행진에 참여 하였습니다. 그런 제가 어린이들의 손을 잡고 그리고 함께 살고 있는 부모님의 손을 잡고 함께 나왔던 이유 중 하나는 나와 결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구나, 라는 연대의 힘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연대의 감격을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음이 가장 컸습니다. 그렇기에 나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 만으로도 하나의 축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기후정의행진은 기후의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후위가 결국, 모든 국민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목소리로 모아져야 하고 그리고 그 안에는 미래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존권 침해도 물론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후위기의 책임을 지금 자라나고 있는 세대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양육자로써 기후위기행진에 참여할 수 밖에 없는 이유 또한 자라나고 있는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어떤 세상을 물려 주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아기기후소송단에 참여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미래 세대의 입장에서 국가가 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목표를 달성한다 해도 미래 세대의 기본권이 침해됩니다. 2017년에 태어난 아기가 배출할 수 있는 탄소량은 1950년에 출생한 어른이 배출할 수 있었던 양에 비해 8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어린 세대일수록 지금보다 훨씬 강력하게 탄소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 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미래세대에 대한 기본권·생존권 침해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으로 인한 미래세대의 기본권 침해 뿐만 아니라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미래세대에 대한 기후 폭력을 당장 멈추기 위해서 양육자들이 나설 수 밖에 없었습니다. 후쿠시마핵오염수 방류, 삼척화력발전소 건설, 새만금공항건설, 가덕도공항건설 등, 자라나고 있는 미래세대에게 어른들이 남겨주는 기후폭력들은 그들이 살아가야 할 터전과 환경과 건강을 빼앗고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담장을 넘기 어려워 양육자들과 함께 기후정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어린이 청소년들이 당사자로써 자발적으로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홍보하는 작업 또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이 당사자로써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기후정의행진에서 만큼은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노력 또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기후정의행진은 모두가 참여 가능한 기후정의행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소외 받지 않고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기후정의행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기후정의행진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정의행진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줄 수 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기후정의행진은 환경을 비롯하여 우리 모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로의 전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문 6〉

윤영우
(성공회대학교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학생회장)

지난 9월 열린 923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하고자 하는 성공회대학교 개인 학우들을 모집, 조직해서 당일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923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한 성공회대학교 학내 단위는 10개 이상, 참여자는 약 100여명으로 추산했는데요, 재적 학생 수가 2860명 정도임을 고려하면 다양한 단위와 많은 인원이 참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 대표자 조직인 세 학부의 학생회와 인권위원회, 풍물패 동아리인 민속문화연구회 탈, 학내 권리 조직인 학내노학연대 가시, 여성학회 열음, 환경학회 공기네트워크, 학내 퀴어소모임 회오리, 신문방송학전공 행사에 참여하는 사진팀까지 9월 23일 시청 앞 거리로 나와 기후 정의를 외쳤습니다.

당연히, 성공회대학교에서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고 자랑하거나 생색내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관심사와 하는 일, 생각과 생활 방식이 전부 다른 구성원들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 모여 서로를 반기던 이유는 기후정의가 곧 연결이고 연쇄라는 자각과 감각 때문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기후 재난은 모두에게 위협인 동시에, 약자의 삶을 먼저 덮칩니다. 촘촘하고 복잡하게 직조된 불평등과 재난은 모두의 것이지만, 동시에 약한 생명의 삶을 먼저 겨냥한다는 억울한 모순에 분노하는 구성원들은 삶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기후재난과 매일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동물이고, 생명입니다. 가끔은 공동체, 연대, 인류애 같이 닳도록 입에 올렸던 단어들의 허황을 실감합니다. 집회와 행진에 남은 건 절박한 분노뿐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삶의 터전은 투쟁과 분노의 장이 되었다는 생각에 막막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다만 기후정의행진을 준비하고 기대한 날들, 함께 구호 외치던 거리, 춤추며 행진한 시간은 기후 걱정, 세상 걱정에 잠못 드는 대학생이 자기 혼자가 아니었음을 다시 마주한 날이었습니다.

많은 집회의 과업이 대중화와 지속성 확보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에 더불어 효과적인 기획의 틀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후정의행진이 다음 접촉을 이야기하려면, 우리의 요구와 행동이 휘발되지 않는다는 감각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날만의 행사로 남기지 않고, 더 많은 이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직접 확인했던 연대의 장면을 기반으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목전에 다가온 기후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모인 이들의 시간이 무의미하지 않았음을, 분노와 무력을 넘어서는 사랑은 결국엔 존재함을, 걱정으로 모여 실천을 요구하는 자리에서도 웃을 수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행진이면 좋겠습니다.

성공회대학교 제38대 중앙운영위원회가 게시한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와 대학생 강제 연행 규탄을 위한 성명서”의 일부 내용을 읽고 발표 마치고자 합니다.

“바다는 삶이고 생명이다. 세계는 유기적으로 구성되며, 촘촘하게 연관되어 숨 쉬고 살아간다. 바다에서 나고 살며, 바다로 돌아가는 모든 원소와 생명은 인간과 생태에 연결되어 있다. 바다와 환경의 문제는 머나먼 미래 세대가 아닌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을 직면해야 한다. 환경은, 환경과 삶을 지키고자 하는 목소리는 극히 일부의 얕은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합의’하여 더럽히고 남용하며 무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서로 엮여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토론문 7〉

서찬석(중앙대학교 사회학과)

923 기후정의행진은 많은 성과 및 가능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한계와 숙제 역시 함께 안겨주었다는 것, 이것은 집행위원회와 다수의 행진 참여자들도 공유하는 바일 것이다. 한편으로 기후정의행진은 부문과 의제를 아우르는, 대중운동에 기반한, 체제전환 운동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날 기후재난에 대응하여 제도권에 압력을 가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보면 물음표가 던져진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기후정의행진이 하나의 관행적인 문화행사에 그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집행부의 고민도 읽혀진다. 본 토론에서는 크게 두 가지 지점, 즉 (1) 사회운동으로서의 성격, (2) 기후정의행진에 함께 한 운동참여자들의 특성에 초점을 두고 기후정의행진이 서 있는 지점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첫째, 기후정의행동이 주도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기존 환경운동의 연장 선상에 두고 생각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서유럽과 미국, 그리고 한국에서도 드러난 바, 기존의 환경운동은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투쟁이 대중들의 높은 삶의 질에 대한 요구로 전환되는 과정, 이론적으로는 '경제성장 이후 물질주의에서 탈물질주의로의 전환'을 배경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등장한 것으로 설명한다. 하지만 기후정의행동은 기존 환경운동의 온건성과도 거리를 두고 있고, 부문과 의제의 광범위함을 고려하면 생존과 삶의 질을 아우르는 여러 대중적 요구들을 포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중적 확장은 미국의 경우 금융자본의 부패와 탐욕에 맞서 2010년대 초반에 등장한 월스트리트 점거운동에서 나타난 바 있는데, 당시에 기존 체제의 변화를 갈망하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월스트리트 점거운동이라는 열린 플랫폼 위에서 분출되었던 바 있다. 안타깝게도 해당 운동은 명확한 운동 목표 및 전략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한계로 인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는 못했지만, 오늘날까지도 변화를 갈망하는 대중들의 목소리는 그 당시 형성된 온라인 및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표현되고 또 때로는 조직화되고 있다. 기후정의운동 역시 이와 같은 급진적이면서 포괄적인, 열린 플랫폼과도 같은 사회운동으로 점차 자리매김해가고 있는 것이 고무적이다.

둘째, 기후정의행진에 참석하고 있는 이들은 누구인가? 현재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의 정다영 선생님 및 여러 청년 연구자들과 함께 사회운동 참여자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과정에 있지만, 현재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른바 새로운 참여적 시민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점이다. 앞선 논의 지점과도 연결되지만,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하는 이들 중에는 환경문제에만 관심을 쏟는 이들이 아니라 인권 일반, 동물권, 노동운동, 또 여성운동과 성소수자운동에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많이 관찰되었고,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은 세대의 운동 참여 역시 두드러졌다. 특히 이들은 기존의 노조, 시민단체와 같은 사회운동조직에 대해 적대적이지는 않으면서도, 동시에 본인은 오롯이 개인으로서 참여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기후위기라는 사안의 절박성을 고려할 때 기후정의운동을 하나의 정세적

투쟁으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목소리를 이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기후정의행진이 하나의 관행적 연례행사로 발돋움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귀한 성과이자 출발점은 아닌가,
기후정의행동이 목표의 급진성 및 포괄성과 함께 동시에 운동참여주체의 확장까지도 가능케 할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게 된다.